

# 家政學 教育과 職業\*

## Home Economics: Potentials for Professionalism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科

教授 尹 福 子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 Bok Cha Yoon (Lee)

### <目 次>

- |              |            |
|--------------|------------|
| I. 머릿말       | 3. 기타 직업개발 |
| II. 가정학 직업전망 | III. 맺는말   |
| 1. 가정학과 직업   | 참고문헌       |
| 2. HEIB에의 전망 |            |

### <Abstract>

In a rapidly changing Korean society, the role of home economics in ideological education and practical professionalism is faced to be reset.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home economics and career opportunities. The following issues were discussed in detail:

1. *Home Economics and Occupation*: a) As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job applicants must carry their message in person to potential employers. Employers must be taught that persons with home economics degrees have the capabilities and qualifications to fill a variety of positions. b) In May of 1977, Vocational Education Coalition was established by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HEA),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This coalition defined the vocational education as occupation of homemaking and paid employment in home economics occupations for women and men.

2. *Home Economics in Business*: Twelve percent of the total membership of the AHEA is affiliated with the home economics in business section. A professional management consultant, Dr. Strain's viewpoint and Corning Glass Work's case about business value in the home economics were summarized; a) Why a business employs a home economist. b) Why a business does not employ a home economist. c) Enhancing the home economist's value. d) Home economist's roles in Corning Glass works.

3. *Creating a Career*: a) Mrs. Maineri's story. b) Family financial counselors. c) Home economist and displaced homemaker. d) Job opportunities in international services.

\* 본 논문은 1980년 2월 19일 제 4차 연세대학교 가정대학교수세미나에서 "가정학의 교육이념과 앞으로의 교육방향"이라는 주제하에서 발표된 일련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임.

Since the role of home economics in Korea has had little perception in professionalism, the following issues require immediate and serious attention to enhance career opportunities for home economists: -Employers and government's recognition of home economist's value, -Home economist's attitude to enhance their value, -Fair employment and sex discrimination, Curricula adjustment, and -Support from women's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fair treatment, top jobs, etc.

## I. 머리말

대학의 본질은 아직도 이상추구를 그 기본 이념으로 하는 고대 희랍의 아카데미아 정신인 “진리탐구”에 있다고 하고, 한편 현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즉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있다고도 한다. 이렇게 현대 대학교육 이념이 이 양갈래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을때\* 가정학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졸업생이 잘 팔리고 있어 “취직을 위한 기술 교육에 치우쳐 있다고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졸업생들의 직업전선 개발에 애쓰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볼 일이다.

가정학은 그 특수성 때문에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학문의 응용을 통해 다른 주부들 보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부(full-time homemakers)의 살림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나이와 교육수준에 따라 연간 \$2,340~\$7,180 이 된다고 하였다<sup>1)</sup>. 이 연구에서 가정학 전공 주부들은 최대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가정학과 직업전망”을 생각할 때 “주부”도 하나의 직업명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생각할 문제이다. 본문에서는 가정학 전공자들의 직업전망과 가정학에서도 전받고 있는 창의적 직업개발에 관한 최근 문헌을 요약 정리하여 한국 가정학 교육을 재평가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 II. 가정학 직업전망

### 1. 가정학과 직업

#### (1) 구직에 대한 태도

가정학을 직업 영역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좀더 나은 결혼 배우자 선택과 부모가 되기 위해 배우는 학문 분야로 흔히들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학은 그 외에도 흥미있고 만족스러운 직업의 기회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 육구의 심오한 영역이라고 Lind<sup>2)</sup>는 다시 정의하면서 가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직업인이 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가정학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 한 학생의 인간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 물리학자, 농경학자, 생물학자들은 그들 전공이 직접 개인발달이나 인간 상호간의 대인관계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반하여 가정학 전공자들은 이 두 영역을 상호 연관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가정학 전공 학생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다음 사항을 꼭 명심해야 한다.

- ① 구직자라면 끼꺼이 집을 떠나 직장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 ② 좋은 직장이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학원 교육(석사학위)도 받을 작도를 해야 한다.
- ③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구직자는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가정학 전공자들의 능력, 교육배경, 훈련과 경험등을 고용주들에게 과감히 자신을 선전하여 새로운 직업기회를 갖도록 노력함이다.

#### (2) 직업교육의 필요성

가정학에서 직업 또는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절

\* 전병재, “사회변천과 대학교육”, 제 15회 연세대학교 교직원 수양회, 주제강연, 1979. 2. 22

감하여 미국에서는 3 단계\*가 관여하여 1977년 5월에 직업교육연맹(Vocational Education Coalition)을 설립했다. 여기서 가정학직업교육의 범위를 정하였다. 즉 Homemaking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가정학 직업 교육은 Occupation of Homemaking과 임금고용의 가정학 직업(Paid employment in home economics occupations)을 위해 남성과 여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sup>3)</sup>. Homemaking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한 이유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sup>3)</sup>. Homemaking이라는 직업은 개인과 가족의 최적생활과 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임무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 필수적이고 서로 상호 연관성 있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즉, 가치관, 관리, 대인관계와 같은 중요 개념은 어린이와 가족관계, 의복 및 섬유, 식품 및 영양, 소비자 교육과 자원관리, 그리고 주거학 등의 학과내용을 통합시켜 준다. Homemaking을 하는 필수적 기술은: ①생활주기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성장과 만족스런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②자녀양육 ③가족원 각각에 맞는 식생활 관리 ④가족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가구선택, 보존, 시설설비등) ⑤가족원 각각을 위한 옷제공과 관리, 그리고 ⑥재정및 자원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학과목의 지식과 필수적인 기술은 임금고용의 가정학 직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환경과 대상이 다를 뿐이다. 어린이, 노인, 불구자 또는 기업에서 응용되는 지식의 원리나 기술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가정학에서 직업교육의 필요성은 가정과 사회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존의 결속의식(Solidarity)<sup>4)</sup>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즉 가정은 어린이의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사회기관이고 가정이라는 제도는 사회의 다른 중요기관(특히 교육이나 기업기관)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회가 갖고 있는 제문제 즉 영양실조, 어린이학대, 소비자사기, 10대의 임신, 에너지 손실, 환경오염등에 가정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개인은 생활을 만족하게 살기 위해 가족과 관련된 인간관계 기술과 자원관리의 기본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sup>3)</sup>.

## 2. HEIB에의 전망

HEIB(Home Economics in Business)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요즘 가정학 전공 졸업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기업체에 진출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가정학 전공자를 “Home Economist”라고 부르며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sup>5-9, 10)</sup>. 기업에서 가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Marie<sup>11)</sup>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정부도 믿지 않고 기업도 믿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바로 이 전문가를 배출해 줄 수 있는 분야가 가정학이라고 본다.”

미국 가정학회 회원의 12%가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학 전공자들의 자질(Competencies)조사 요구에 응한 Strain<sup>6)</sup>의 보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왜 기업은 가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가?

①이윤을 얻기 위해, ②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③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④소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소비자의 요구조건 파악, 그 요구조건을 상품에 적용, 소비자의 불평 불만을 능숙하게 처리, 사용방법과 취급주의로 상품의 책임보상을 줄인다), 그리고 ⑤낮은 가격으로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이외에도 가정학 전공자의 자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recipe 연구개발과 작성, 상품을 분석하고 성능을 검사하는 기술적 재능, 그리고 최고경영관리조직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와 건의사항을 개발하는 관리능력들 들었다.

### (2) 왜 기업은 가정학 전공자를 고용하지 않는가?

\* AHEA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VA (American Vocational Association)  
HE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①가정학 전공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지식의 결핍, ②가정학 전공자가 갖고 있는 자질을 확실히 모름, ③가정학 전공자가 기업에서 이윤을 올리는 데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신념이 없음, 그리고 ④가정학 전공자에게 충고가 힘들다(too naive, too easily upset).

#### (3) 가정학 전공자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일

①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관리분야에서의 새로운 방법과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 ②기업에 종사하는 가정학 전공자는 특히 윌사사람이나 고용주에게 자신의 능력을 선전할 필요가 있다(to sell herself). ③가정학 전공자가 얼마나 기업에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경영자에게 매달 보고서를 간결하게 작성하여 바른 경영자가 한눈에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④건설적 태도를 갖는 일, 기업에서 무엇을 받으려는 자세보다 즐리는 태도, 제출기일 보다 늦게 내지 말고 오히려 일찍 내는 일,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self-starters)은 고용주에게 높은 평가를 받음, 그리고 불찬성이나 적개심이 생길 경우, 사람에게 물러지 말고 문제에만 물러지면 만족하게 해결됨. 문제 해결에 접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정당화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술이다.

#### (4) Corning Glass 회사의 예

Corning Glass 회사에서 가정학 전공자를 고용해서 새로운 임무 개발에 대한 Jones<sup>9)</sup>의 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의견센타와 Focus Group 을 조직하여 Returned Card 를 통해 소비자 문제나 상품에 대한 불만을 추적하였다. 또 Monitoring System 을 이용하여 현장판매와 Direct Consumer Communication Manuals 개발과 편집도 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Cycle, Home Test Panel 을 만들어 소비자의 반응을 얻었다. 또한 Booklets, label, 보충서, 상품전서; 사진이나 film 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게했다. 이상과 같이 Home Economist 를 하나의 전문가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얻은 성과로 Corning Glass 회사에서는 Home Economist 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HEIB에서 더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Strain<sup>8)</sup>, Jones<sup>9)</sup>, Michael과 Hunt<sup>10)</sup>등의 견의를 보면 가정학 전공자도 기업관리(Business Manager)나 고위지위(Top Jobs)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가정대학 교과과정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경제학, 경영회계, 경영관리의 개념과 실습, Salesmanship, Business Writing, Marketing, Public Speaking, 일반심리학 등과 같은 교과과정이 첨가되고 대학원 과정에서도 경영관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3. 기타 직업개발

#### (1) 직업개발의 사례(Creating a Career)

Maineri 부인은 29 세이고 1 할짜리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치명적인 퇴직을 하게 되어 자기직업개발의 계기가 된 사례를 소개하였다<sup>10)</sup>. 그는 1년 동안에 다음과 같은 8 가지 종류의 직업을 찾아서 개발한 직업에 대한 경험담은 다음과 같다.

*Part-time teacher:* 소녀기술학교에서 재봉을 가르칠 시간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학장을 만나 면담하는 동안 그 학장이 가정학 영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의 전문지식에 관해 설명하여 실직한 후 일을 얻었다. 1년간은 가정학의 중요한 목적을 행정가에게 주입하였고 2년째 되는 때에는 의복구성과 영양학에 대한 개론과 고급과정에 까지 4 과목을 개설하고 학점까지 주고 있다.

*Concerned Consumer:* T.V. 음식광고에서 틀린 영양개념을 선전하는 것을 듣고 시정하기 시작해서 상업광고에 까지 손을 대어 6개월 동안에 10 회사에 8 가지 부정적 평가와 2 가지 긍정적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 정중한 사과편지와 2 회사에서는 사장이 직접 답장해 주었다.

*Free-Lance Writer:* 교실에 있을 때 중학교과정에서 영양교육을 위한 실험기구가 부족했었다. 이 기구 구입을 위해 게임과 놀이를 고안해서 전문잡지에 기재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글 쓰는 일에 용기가 생겼고 글쓰서 개발에 힘쓰게 되었다.

*Food Columnist:* 신문 식품란에 소개된 "pop-corn balls"에 대해 찬성할 수 없어 편지를 썼다.

그 결과 이제는 그 신문에 고정기자로 고용되어 영양가에 대해 쓰고 소비자 질문에 응답하고 새로운 recipe도 소개하게 되었다.

**MACAP\* Investigator:** 가정기구에 대한 불평을 해결해 주기 위해 두 가정을 방문했다. 한 집을 예들들면, 은퇴한 늙은 부부가 자동식 서리제거 냉장고의 소음에 견딜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소음을 녹음한 카세트를 MACAP에 보냈다. 그 결과 몇달후에 혁신적인 연구기술을 위한 panel로 국가에서 추대받았다.

**TV Demonstrator:** 값싼 고기를 갖고 맛있게 음식을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한 친구가 내 이름을 TV 음식 프로 "talk show"에 소개하였다. 그후 그 프로에 초대받게 되면서 3차례나 TV에 나가 이제 짧은 시간에 간략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응시하며 말하는 기술도 늘게 되었다.

**Guest Lecturer:** 나에게 있어서 강연은 가정학 전공자로서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길러 준다고 본다. 나는 모든 강연초대에 응하고 있지는 않으나 새연구 문헌에 접할 수 있을 정도로 강연을 한다.

**Crafts Designer:** 나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수공예품을 위한 창작을 한다. 어느날 애기와 산책하다가 새로 생긴 공예품상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위탁판매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고 돌아와 1주일 후에 내 작품을 위탁판매 하게 하여 전시되고 팔렸다. 또 이웃에 늘어나는 위탁판매업소에서 판매기술을 조사하여 그 아이디어를 신문에 팔았다.

## (2) 기타 직업

### ① 가정재정 상담자

가정학 전공자로 가정경제를 특별히 공부한 사람은 "family financial counselors," "family money management counselor," "advisers", 또는 "consultants"라는 칭호로 불리우면서 가정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sup>11)</sup>. 가정 재정 상담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실안에서의 토의와 재정적인 상담을 해주는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실습이 함께 행해지는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Churaman<sup>12)</sup>은 지

적했다.

### ② Displaced Homemaker를 위한 직업

가정학 전공자는 Displaced Homemaker들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직업자라고 했다 그 이유는 직업을 얻는 기술을 가르칠수 있고, 재정과 자원관리를 교육할 수 있고, 자아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지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심리적 지원등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International Service

요즘 가정학 전공자들이 국제적인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기회가 여러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정생활 정도가 실제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나 인구교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정학 전공자들의 도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 3세계를 위한 국제원조 프로그램에도 가정학 전공자들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너지 절약, 환경디자인, 인적 물질적 자원관리, 매매와 소비자 보호기관에 전문지식을 가진 보다 많은 가정학 전공자를 훈련시키므로서 늘어나고 있는 직업 기회에 대응할 수 있다<sup>13)</sup>.

이외에도 지역사회 생활에 직접 참가하여 가정의 질적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가정학 전공자의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sup>14)</sup>. 또 Ahlschwe<sup>15)</sup>는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전통적인 부덕에 숨어살기보다는 공공생활에 참여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요구에 응하여 상담자와 중개인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에 나아 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가정학 교육이 계속 성장하려면 대학에서는 성에 관계없이 가정학 전공자를 배출해야 하고 가정학 전공자는 전문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또 더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Spitze<sup>16)</sup>는 지적했다.

## Ⅲ. 맺 는 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대학교육의 전통적 이념과 물질적 가치의 현실문제와 어떠한 평형을 이루어야하나 하는 영원한 숙제를 가진채

\*Major Appliance Consumer Action Panel

가정학에서도 “교육과 직업”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헌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가정학 교육에서 “직업”과 “봉사”를 중요한 교육 이념의 하나로 삼고 또 도전으로 여기고 있어 직업개발과 개척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가정학도의 직업 진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같이 생각하고 토의함으로 가정학 교육의 이념을 재확인해 보는데 의의가 있겠다.

- 1) 국가나 기업에서 가정학을 인정하고 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문제,
- 2) 가정학도의 직업관과 태도,
- 3) 성차별과 공정한 고용대우 문제,
- 4) 적극적인 직업개발과 이를 위한 교과목 개정
- 5) 여러 여성단체의 지지를 얻는 문제(직업의 기회, 공정한 대우, 고위직위 개방등).

## REFERENCES

1. Fethke, C.C. and Hauserman, N.R. “Homemaking: The Invisible Occup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71, Summer 1979, pp.20-23.
2. Lind, R.W. “Jobs for Family Life Major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8, January 1976, pp26-28.
3. Hill, A.D., Shear, T., Bell, C.G., Cross, A. A., Cater, E.A., and Horning, L.N.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A Statement by the Vocational Education Coali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1, Winter 1979, pp.12-16.
4. Gross, I.H., Crandall, E.W., and Knoll, M. M.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3rd ed., Meredith Corporation, 1973.
5. Jones, B. L. “Consumerism: An Opportunity, Not a Threa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8, January 1976, pp.22-25.
6. Strain, R.W., “Business Values the Home Economis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2, January 1970, pp.49-53.
7. Marie, S.S., “Consumer Affairs: Potentials for Professionalism”,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70, January 1978, pp.18-20.
8. Richardson, G. and Katz, E. “The Role of Home Economists in Business in Energy Issu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70, Winter 1978, pp.27-28.
9. Michael, C.M. and Hunt, F.E., “Are Home Economists Prepared for Top Job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7, July 1975, pp. 4-6.
10. Maineri, S.C., “Creating a Career: How I Developed a Job Market as a Free Lance Home Economis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8, September 1976, pp.51-52.
11. Churaman, C.V., “Family Financial Counselling-Home Economists at Work: A Roundup of Experienc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9, January 1977, pp.18-21.
12. Williams, H., Harris, R., and Harrison, B. “Home Economist and the Displaced Homemake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71, Summer 1979, pp.30-31.
13. Edwards, C.H., “A New Look at International Service in Home Economic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9, No. 4, September 1977, pp.58-61.
14. Ahlschwed, M.P., “Involvemen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8, Septmeber 1976, pp.18-20.
15. Spitze, H.T., “Home Economics in the Future”,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8, September 1979, pp.5-8.
16. 중앙일보, “미국여성의 새 인기 직종”, 홈 이코노미스트, 1976년 6월 4일